

고총기(高塚期) 백제와 신라 엘리트의 몸과 장례 비교

적석총과 적석목곽묘를 중심으로

하대룡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고고학 전공

hasson98@naver.com

- I. 서론
 - II. 고총기 백제와 신라 엘리트의 장례 비교
 - III. 정치체 간 장례의 차이와 설명의 시도
 - IV. 결론
-

I. 서론

한반도 고대 고분의 전개 과정에서 고총의 등장은 그 자체로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전 시기의 무덤과 달리, 고총은 기단이나 호석, 또는 주구 등으로 한정된 묘역을 갖고 지상에 고대(高大)한 분구나 봉토가 축조된다.¹ 대략 5세기 대를 전후로 하는 백제와 신라의 고총기는 사회복합화 과정의 일대 전환기로서, 국가 형성 과정과 관련되어 주로 논의되었고 상당한 성과를 축적했다. 고총기의 압도적인 분구와 봉토는 단순한 묘역의 표지를 넘어 하나의 기념물로서 의도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당시 지배계층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들의 권력 성격에 이전 시기와 다른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고총화를 전후로 한 두 정치체의 궤적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사회복합화 과정의 심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고총화가 진행되고, 그다음 단계에는 추가장을 전제로 한 횡혈식 석실묘가 도입되면서 묘제의 전환과 함께 기념물적 성격을 갖는 고대분구/봉토가 점차 퇴조하는 것도 동일하다. 이처럼 백제와 신라가 큰 틀에서 장례 문화에 공통의 궤적을 그리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치체의 고총기를 본격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는 희소한 편이다. 신라와 백제라는 두 정치체의 고총과 그 내용인 장례문화를 비교하는 작업은, 각 정치체의 상대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한반도 남부에서 국가 형성이라는 사회복합화 과정을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22-C13).

1 이희준, 「新羅 高塚의 특성과 의의」, 『嶺南考古學』 20(1997); 최병현, 『신라 6부의 고분 연구』(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사적 결여에 극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시론적이거나 두 정치체의 고층을 비교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백제와 신라의 고층을 비교하는 작업은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고층 또한 하나의 무덤이며, 무덤은 본질적으로 피장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피장자의 몸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검토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장례의 중심인 피장자의 몸이 의례적 맥락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구분되고, 치장되는지 검토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각각의 정치체에서 장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드러낼 수 있고, 멀리는 그러한 차이를 유발한 원인을 설명하여 신라와 백제의 서로 다른 고유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의 지점은 시신을 다른 방법, 시신의 사회적 높낮이를 표현한 방법, 그리고 성별/젠더를 통해 구분한 방법 등 세 가지 측면을 설정했다. 즉 두 정치체의 고층에서 피장자의 몸이 장법, 계층화, 성별/젠더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비교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연구 방법이 될 것이다. 비교의 중심 자료는 백제와 신라의 중심고분군인 석촌동고분군과 월성북고분군이 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각 정치체의 주변 자료 또한 활용하여, 두 정치체에서 피장자의 몸이 장례 맥락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II. 고층기 백제와 신라 엘리트의 장례 비교

피장자의 몸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접근한다고 할 때, 물질자료를 통해서 크게 ① 몸(시신) 그 자체를 처리한 방식, ② 몸을 치장하고 차별화한

방식과 그 의미, 그리고 ③ 성별/젠더에 따라 몸을 구분한 방식 등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고의 진행 순서는 먼저 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 두 정치체의 중심고분군을 중심으로 비교한 다음, 그러한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근접설명(proximate causation)을 시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차이를 유발한 원인이 무엇인지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distal causation) 순서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서 한 가지 문제는 현재 백제의 중심고분군에 대한 조사가 신라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점이다. 경주의 신라 고총은 이미 근대 이전부터 관리의 대상이었지만 백제 고총은 서울의 개발과 함께 크게 파괴되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한성백제박물관의 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실체가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아직 그 성과가 완전히 종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고의 검토에는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부분적이거나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이 글의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다소 즉물적인 접근이다. 가령 착장형 위세품을 비교한다고 할 때, 현재 남아 있는 자료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피장자의 신체를 장식하고 지위를 표현했던 많은 유기질제 의류가 있었겠지만, 자료의 특성상 귀금속제, 유리제 유물로 접근이 한정된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 인물의 개인성(personhood) 또한 현재 남아 있는 물질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개인성이 장례 과정에서 조묘자에 의해 선택·과장·왜곡, 심지어 조작된다 하여도 일차적으로는 현존 자료를 통해 접근할 것이다.

둘째, 다소 환원주의적 접근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고총기 고분 자료는 수량이 많고 복잡한 양상을 띠지만, 두 정치체의 대비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단순화해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확인된 ‘일반적 양상’을 중심으로 비교가 이루어질 것이며 예외나 특수한 양상은 적절히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젠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한반도의 고분 자료에서는 생물학적 성별과 젠더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혹은 연관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피장자의 생물학적 성별을 담보할 수 있는 인골자료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젠더 관련 논의에서는 잠정적으로 남녀 대립의 단순한 이분적 관계로 환원하여 접근할 수밖에 없다.

셋째, 다소 유물론적 접근이다. 기본적으로 고고학이 그러하듯, 물질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장례라는 문화적 행위를 물질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또 행위는 해당 사회의 여러 물질 환경에 의해 조건지어진다는 전제하에 접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두 정치체의 중심고분군에서 피장자의 몸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비교하고, 그러한 차이가 유발된 조건을 추론하고 적절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1. 시신의 처리 방법

무덤은 기본적으로 시신이 보이지 않게 수납하고 격리하는 공간으로서, 시신의 처리 방식은 일반적으로 무덤 축조 집단의 우주론, 세계관, 사후관, 인간관이 복합적으로 개입되었다고 여겨진다. 아마도 시신을 둘러싸고 매우 다양한 행위와 행위의 절차가 있었겠지만, 현재는 그 최종적인 결과물만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신라와 백제에서 시신의 처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행해졌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시신의 처리, 안치 자세와 방식 등을 알려 주는 자료로는 피장자의 인골이 가장 직접적이겠으나, 한반도의 자연적 조건상 그러한 자료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잔존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1) 신라: 신체의 온전성을 유지한 매장

월성북고분군에서 인골 출토 사례는 극소수이다. 비교적 최근 남천 남쪽의 저습지 환경이 유지된 교동, 탑동 등에서 인골이 확인되는데², 역시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에 대한 검토는 충분한 추론의 여지를 부여한다고 판단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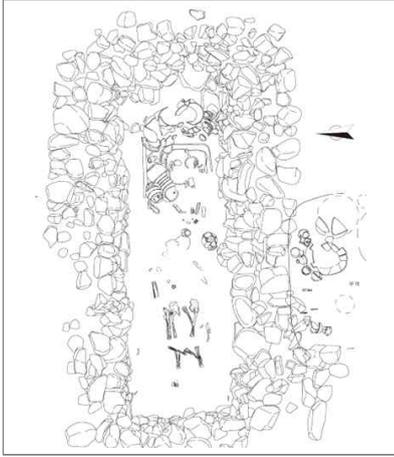
표1— 월성북고분군 및 주변의 인골 출토 현황

연번	출토 유구	안치 자세의 확인 가능 여부
1	황남대총 남분 주피장자	△
2	황남대총 남분 순장자	X
3	월성로 가-13호	X
4	교동 94-3번지 3호 적석목곽묘	○
5	교동 94-3번지 목곽묘	○
6	황남동 95-4번지 1호 적석목곽묘	○
7	황남동 95-4번지 2호 적석목곽묘	○
8	황남동 95-6번지 1호 적석목곽묘 주피장자	○
9	황남동 95-6번지 1호 적석목곽묘 순장장자	△
10	황남동 95-6번지 4호 적석목곽묘	○
11	탑동 21번지 1호 적석목곽묘	○
12	탑동 21번지 2호 적석목곽묘	○
13	탑동 21번지 목곽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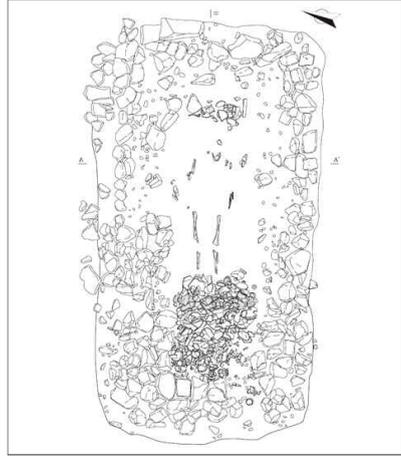
출토 인골의 안치 자세는 기본적으로 팔을 몸 옆에 붙이고 두고 팔다리를 편 앙와신전장이 매우 일관적으로 나타난다(그림1, 그림2). 사지골이 확인 가능한 경우 대부분 곧게 편 상태이며, 모든 사례에서 두 손은 양 골반

- 경주 일원에서 무덤이 아닌 맥락(우물, 월성해자 및 성벽)등에서도 인골이 확인된 사례가 있으나 일반적인 장례 맥락과는 거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 교동, 탑동 등의 적석목곽묘는 묘곽의 형태나 규모 등에서 쪽샘, 대릉원 일대의 것과 차이가 있으며, 시상면에 횡목을 설치하거나 凸字형의 묘형배치 등은 경주 시내보다 경주 외곽의 양상과 유사하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쪽샘 vs 탑동: 적석목곽묘 전성시대』(경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0), 132쪽. 그러한 점에서 월성북고분군의 핵심지구와는 장례양상에서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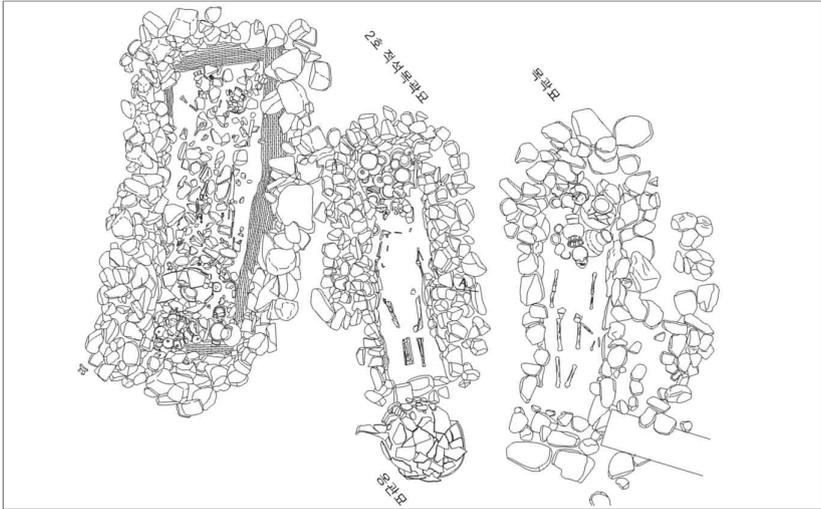
옆에 위치한다. 하나의 예외는 교동 94-3번지 3호 적석목곽묘인데, 두 다리를 모아 구부린 굴장의 형태이나, 상반신은 여전히 양와신전장에 가까우며 두 손은 마찬가지로 양 골반 옆에 두었다.



황남동 95-6번지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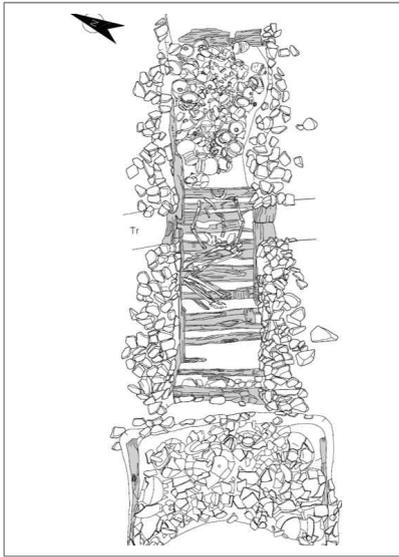


황남동 95-6번지 4호



탑동 21번지 1, 2호 적석목곽묘와 목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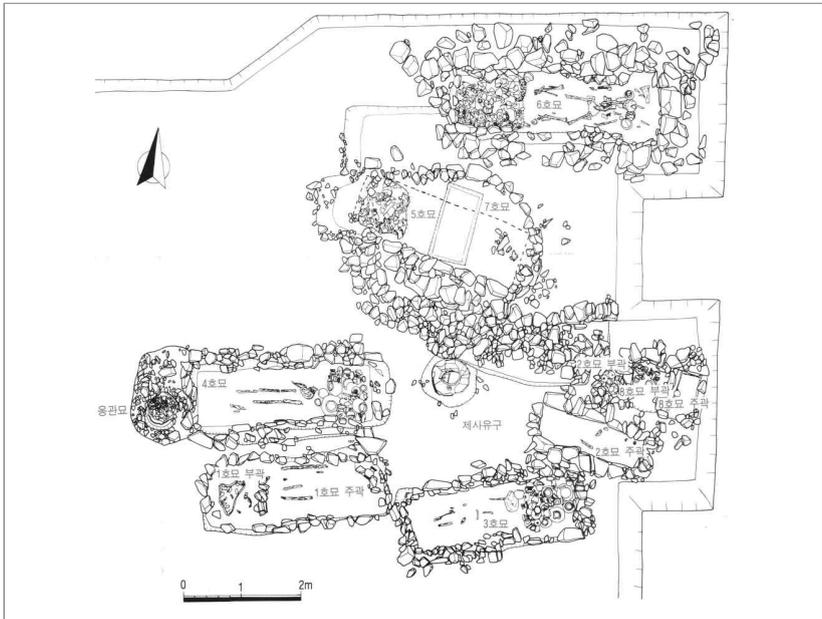
그림1— 인골을 통해 피장자의 안치 자세를 알 수 있는 적석목곽묘 사례 (1)



교동 94-3번지 3호 적석목곽묘



교동 94-3번지 목곽묘



황남동 106-3번지 1, 3, 4, 6호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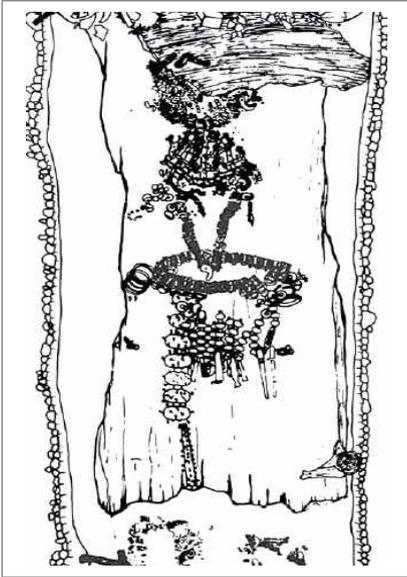
그림2— 인골을 통해 피장자의 안치 자세를 알 수 있는 적석목곽묘 사례 (2)

또한 인골은 남지 않았으나, 상위위계의 고층에서 관류, 이식, 경식, 과대, 천, 지환 등 착장위세품을 통해 안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식과 경식을 통해 머리와 상반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팔찌와 지환을 통해 두 팔 및 손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과대의 위치를 통해서도 허리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모두 일관적으로 천(鉤)이 과대 양 옆에서 붙여 출토되는 점에서, 두 팔을 몸 옆에 붙인 양와신전장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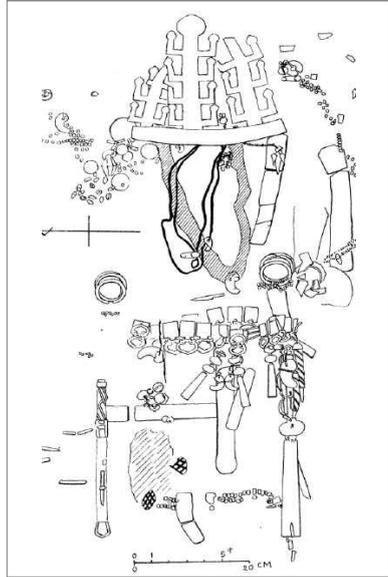
순장자의 경우 경산지역 사례를 볼 때 시신을 묶는 염(殮)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⁴ 순장자의 몸이 주피장자보다 흐트러진 자세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이유는 매장 직전에 순장자가 죽음을 맞고 곧바로 매장되어 염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 한편 주피장자의 시신도 대퇴골 간격을 볼 때 두 무릎을 붙여 묶는 방식의 염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 두 팔도 인골로 보든 천·지환의 출토 위치로 보든 복부 위에 둔 사례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수족을 단단히 붙여 묶는 방식의 염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확인 가능한 모든 인골 출토 사례에서 각 부위가 해부학적 연결성을 유지하고 있고, 머리, 팔, 손가락, 귀 등에 착장한 위세품도 정위치에서 그대로 발견된다. 특히 이식이 예외 없이 두개골 양 측면에서 확인되는 점에서, 신라의 장례는 신체 말단의 연조직이 부패하기 이전에 매장주체부에 안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늦어도 주요 관절의 인대와 근육이 부패되어 해체되기 이전에 안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목관 주위 석단 위에 매장되었다가 함몰된 일부 순장자를 제외하면, 해부학적 정위치에서 이탈한 신체 부위나 착장위세품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4 김용성, 『신라 고분고고학의 탐색』(과천: 진인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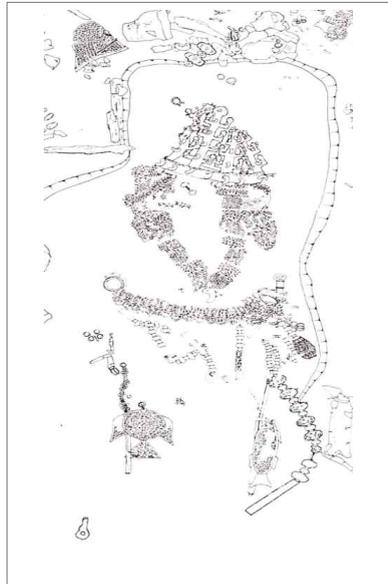
황남대총 북분



금령총



서봉총



천마총

그림3— 착장위세품을 통해 피장자의 안치 자세를 알 수 있는 적석목곽묘 사례

한편 적석목곽묘의 축조 과정과 매장 프로세스에 대한 기존 연구를 참조할 때, 시신의 안치는 지면 정지와 1차 봉토의 축조 및 호석 설치 이후에야 이루어지기 때문에⁵ 해당 공정은 불과 수일에서 길어야 수주 내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그림4 참조). 그러나 대릉원·쪽샘 지구의 대형 적석목곽묘 등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고총에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얼음이나 소금 등으로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한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건에 따라 다양하지만, 이상적인 조건이라면 불과 십수일 이내에 사체가 백골화하여 각 관절부위의 연결성이 파괴되기 때문이다.⁶ 월성북고분군에는 적석목곽묘가 아닌 석곽묘 또는 목곽묘 또한 존재하는데, 탑동 21번지 목곽묘의 인골 출토 사례에서 보듯 매장 자세나 해부학적 연결성의 유지는 적석목곽묘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고총기 신라의 장례에서는 망자의 죽음에서 안치에 이르기까지 피장자의 몸과 피장자의 몸에 걸친 복식이 원상을 유지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결과 현재 확인되는 인골의 신체 각 부위와 착장위세품의 출토 위치가 해부학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장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이유는 그러한 완전성의 유지가 그들의 사후관에서 중요했기 때문일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적석목곽묘 특유의 후장풍습과 연관지어 본다면, 사후세계에서도 다른 종류의 삶이 이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5 심현철, 「적석목곽분의 축조 과정과 매장 프로세스(process)」, 『고고학지』 22(2016).

6 T. Simmons, P. A. Cross, R. E. Adlam, & C. Moffatt, "The Influence of Insects on Decomposition Rate in Buried and Surface Remains," *Journal of Forensic Science*, Vol. 55, No. 4(2010), pp. 889-8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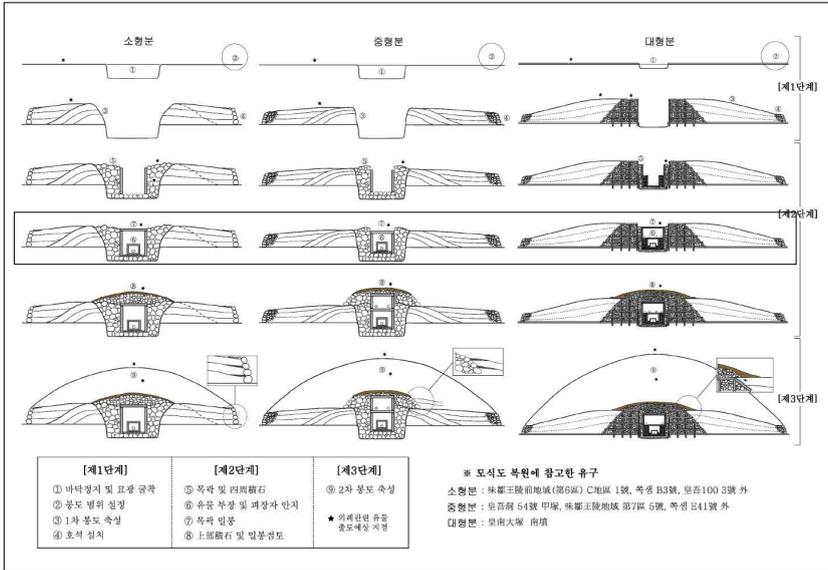


그림4— 적석목곽묘의 축조 및 매장 프로세스⁷
 제2단계의 '⑥ 유물 부장 및 피장자 안치(적색 상자 표시)'는 1차 봉토 축성이 완료된 이후 가능함

이처럼 장례 과정에서 몸의 완전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신라의 석실단계에서도 이어진다. 토우층 등에서 피장자의 머리, 어깨, 발 등을 본뜬 시대(屍臺)를 설치하고 그 위에 시신을 안치하거나, 추가장이 4, 5회 이상 반복되어도 선장(先葬)한 인골을 교란하는 일이 없이 후장(後葬)한 인골을 나란히 안치하여 인골의 해부학적 연결성이 거의 온전히 유지된 방내리 고분군의 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매장 공간의 확보를 위해 집골(集骨)하거나, 또는 빈장(殯葬) 혹은 2차장의 결과 세골(洗骨)하여 해부학적 연결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백제의 석실과는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7 심현철, 앞의 논문(2016)의 자료를 전재했다.

2) 백제: 화장과 매장 병행

석촌동 고분군의 경우 비교적 최근 들어서 본격적인 조사 성과가 생산되고 있다. 아직 그 성과가 종합·정리된 것은 아니어서 무리한 추정과 예단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존 자료를 통해 피장자의 몸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연접적석총의 최근 성과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석촌동 고분군의 적석총과 연접적석총은 현재 경관으로 보아 공존하는 석곽묘 혹은 목곽묘보다 상위 계층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석촌동 고분군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움이 큰 것은, 지금까지 적석총 및 연접적석총과 관련된 명백한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4호분의 경우 초기 보고에서는 황혈식 석실로 보고되었다가 이후 부정하는 견해가 제기되는 등⁸ 매장주체부의 성격과 존재 여부에 모호한 점이 많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조사 중인 1호분 북쪽의 연접식 적석총에서도 계속되며, 현재 확인된 10여 기의 적석묘에서도 매장주체부로 판단할 수 있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석촌동 고분군이 지속적으로 파괴를 겪었다는 정황을 고려한다 해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화장인골의 출토인데, 1986년 조사와 최근의 조사에서 모두 확인되어 석촌동 고분군 전역에서 화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문제는 이것이 매장주체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확인된다는 점이다. 1986년 조사의 소위 화장유구에서 출토된 사례와 함께, 적석묘의 외부 혹은 내부의 일정한 공간에 대량의 기와, 목탄, 소토, 석재, 소수의 장신구 등이 밀집하여 폐기된 지점, 이른바 매장의 레부에서 집중 출토되고 있다. 현재 매장의 레부는 1호분 북쪽 고분군의 세 지점에서 확인되며, 각각에서는 최소 2~3개체에서 유래된 인골이 확인

8 임영진, 「百濟式積石塚의 發生 背景과 意味」, 『한국상고사학보』 57(2007).

된다. 다만 전신이 묻혔다 보기는 어렵고, 전체 골격 중에서 일부만 확인된다. 여러 개체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한 사람씩 여러 차례 화장한 결과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을 한 번에 화장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매장의레부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것이 일종의 무덤일 가능성, 혹은 화장 이후의 폐기물을 의례적으로 처리한 공간일 가능성 두 가지가 제기되며, 본고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다루고자 한다.

매장의레부 내에서는 ‘시신을 안치한다’는 개념을 가진 공간, 즉 굴광이나 안치장소, 골호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많은 양의 유물과 인골이 뒤섞여 출토되는 상황이다. 즉 무덤의 근본적인 목적 중 하나인 망자의



석촌동 1호분 북쪽 고분군의 매장의레부 위치

1호 매장의레부

그림5— 석촌동 1호분 북쪽 고분군과 매장의레부의 예

몸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매우 약한 것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목탄이나 소토 등 화장 잔존물과 동일하게 다루어진 점에서, 시신에 대한 존중의 의도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매장례부가 피장자의 화장골을 수납한 무덤이라 한다면, 화장골 자체가 망자의 시신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화장이라는 장례 과정에서 불로 인해 피장자의 몸에서 영혼 등 중요한 요소가 빠져나가고, 나머지 화장골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화장 잔존물과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는 고고학적 개념으로는 피장자의 시신을 처리한 무덤이 되, 당시의 시각으로 본다면 무덤이 아닐 수도 있게 된다.

다른 가설인 무덤이 아닐 가능성을 고려하자면, 화장 이후 화장골에서 상징적, 의례적 의미를 갖는 부위만 수습하고, 그러한 의미가 없는 나머지를 화장 잔존물과 함께 폐기한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습골 이후 남은 화장골은 더 이상 망자의 몸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목탄 등의 잔존물과 동일한 맥락에서 다루어져 어떤 존중이 없이 현재의 맥락으로 폐기된 것이 되는 셈이다. 이렇다고 한다면 수습된 화장골 일부는 다른 매장주체부에 안치되었을 것인데, 아직 석촌동에서 그러한 지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된다.

한편 제3의 가설로, 매장례부에서 출토된 화장인골이 다루어지는 데 있어 존중의 의미가 적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이 신분이 낮은 순장자였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매장례부 내에서 금제이식, 영락, 유리구슬 등이 출토되는 점에서 이들이 신분이 낮은 순장자였을 가능성은 낮다. 또한 일부 금동제 장신구는 피장자가 착용하고 화장되어 완전히 용융된 상태로 출토된다.⁹ 매장례부 내에는 중국제 청자, 다량의

토기, 기와 또한 공반되는 경우도 있어, 화장의 주체가 백제 왕실을 비롯한 최고위 계층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¹⁰ 뿐만 아니라 최근 영유아의 화장 골까지 확인되면서 이들이 순장자일 가능성은 더욱 작아졌다.¹¹

즉 매장례부가 무덤이었던, 혹은 무덤이 아니었던 매장례부의 화장 인골은 물리적으로는 망자의 몸이되 개념적으로는 망자의 몸으로 다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화장이라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 망자의 몸(또는 그 일부) 상징적, 실제적 의미를 상실하고 이후 다른 사람의 몸, 심지어는 건축 자재, 혹은 폐기물과 뒤섞이기도 한 것이다.

즉 백제의 장례, 특히 연접적석총과 관련된 화장에서는 몸 그 자체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장례의 과정과 목적에서 중요하지 않았다. 화장 과정에서 몸 혹은 그 일부는 의미를 잃고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다만, 현재 습골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만약 습골이 이루어졌다면 매장례부에 매납된 화장골과는 달리 다루어졌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상징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가진 부위만 습골 후 매장되고, 나머지는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석촌동의 장례에서 매우 특이한 점은 화장과 동시에 매장 또한 행해졌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다수의 목곽묘와 토광묘가 조사되었으며, 일부는 적석총 주변과 연접적석총 하부의 성토층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에 매장된 인골은 출토 사례가 적고 분석을 거친 경우도 없다.

-
- 9 장성윤·진홍주·이재성·이명성, 「매장례부 출토 기와와 소토의 열변형 특성 해석」, 『기술의 고고학: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2022).
 - 10 정치영, 「고대의 화장과 석촌동 적석총의 매장례」, 『기술의 고고학: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2022).
 - 11 신라와 가야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순장자의 선택은 특정한 연령대에 집중되는 것이 보통이다. 신라에서는 영유아의 순장은 확인되지 않고, 10대에 순장자 연령 분포가 집중되어 있다. 하대룡, 「慶山 林堂遺蹟 新羅 古墳의 殉葬者身分研究: 出土人骨의 미토콘드리아 DNA 分析을 中心으로」, 『한국고고학보』 79(2012).

매장 자세나 시신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1986년 조사된 대형토광묘의 2호 토광과 A지역 출토 인골이 있다(그림6 참조). 대형토광묘 출토 인골은 양와신전장이되 척추는 약간 구부러졌고 양팔은 다소 부자연스럽게 벌린 상태인데, 아마도 부패 단계 중에서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팽창단계(bloat)의 양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시신을 묶는 옴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매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A지역 인골은 두개골 우측면이 바닥을 향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 당시부터 측와반굴장으로 추정되었다. 이 인골은 현재 상반신 부분이 보존 처리되어 있는데, 양측 상완골이 서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최초 측와장의 판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석촌동 3호분 동쪽 고분군 A구역 토광묘 출토 인골의 안치 자세



석촌동 3호분 동쪽 고분군 대형토광묘 2호 토광 출토 인골의 안치 자세

그림6- 석촌동 고분군 출토 인골의 출토 자세 사례

이상의 사례는 화장인골이 발견된 층위보다 하위에서 확인된 사례이지만, 화장과 동시기성이 보다 명확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연접적석총 8호 적석묘의 하부에서 확인된 여러 기의 목(관)곽묘는 5호 적석묘와 동시 또는 나중에 축조되어 화장과 관련된 적석묘가 매장인 목(관)곽묘와 병행 축조된 양상이 명백하다.¹²

왜 동시기 축조 무덤에서 화장과 매장이 병행되었는지는 현재로써는 분명히 알기 어렵다.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종교와 장례가 갖는 깊은 상관에 주목하기 때문에, 석촌동의 화장을 불교와 연관시키는 시각도 있으나 통일 신라·고려시대의 승려들의 비문을 검토한 결과 불교식 장법은 세골장이 중심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¹³, 그러한바 석촌동의 상황은 불교식 장례와는 거리가 있다.¹⁴

그 외에는 주로 적석총의 연원, 고구려 장제와의 연관 등 문화적 계통을 중심으로 화장의 연원을 설명하는 시각이 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 화장이 선택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기능적 이유,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이유, 사회적 과정과 관련된 이유로 구분한다.¹⁵ 기능적 이유는 질병 통제, 운송의 용이성, 매장 공간의 확보 등의 사유로,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화장이 허용되거나 반대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화장이 허용되기도 하며, 피장자의 성별이나 연령, 문화적 정체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화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과정

12 한성백제박물관, 『서울 석촌동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서울: 한성백제박물관, 2022).

13 이지관,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고려편』(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4).

14 정치영, 앞의 논문(2022).

15 C. P. Quinn, I. Kuijt, & G. Cooney, "Introduction: Contextualizing Cremations," C. P. Quinn, I. Kuijt & G. Cooney (eds.), *Transformation by Fire: The Archaeology of Cremation in Cultural Context* (Tucson: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14), pp. 3-25.

과 관련해서는 (주로 징벌의 의미로) 정체성의 파괴를 위해 화장되거나 조상(신) 등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화장이 이루어진다.

석촌동의 화장골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인골이 확인되고, 남성적, 여성적 개체가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연령이나 성별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성별, 연령에 더해, 석촌동 고분군의 광범위한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화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전사자 등 대량 사망자의 처리 결과로 보기도 곤란하다. 또한 왕릉급 혹은 그에 준하는 피장자들을 단지 기능적인 이유로 인해 모두 화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화장과 매장이 병행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석촌동의 조사 결과가 더 무르익기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화장인골이 목곽묘보다 상위 묘제인 적석총 혹은 연접적석총 주변에서 확인되는 점은 계층적 차이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최근 8호 적석묘 하부의 12호 목곽묘에서는 금제귀걸이, 금박유리구슬 등¹⁶ 내용상에서는 매장의례부에서 화장골과 공반한 위세품과 큰 차이가 없는 위세품이 확인된다. 다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장은 위세품도 파괴하며, 녹아 붙어 정체를 알기 어려운 금동위세품의 출토가 있는 점과¹⁷ 금제 영락이 확인되는 점에서 계층적 차이는 여전히 후보로 남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제와 신라는 장례 과정에서 몸을 대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신라의 장례에서는 신체의 온전성을 유지하고 시신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각별한 노력이 투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피장자의 경우, 인골의 출토 사례와 인골이 잔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체 각 부위에 착장했던 다양한 착장위세품의 출토

16 한성백제박물관, 앞의 책(2022).

17 장성운 외, 앞의 논문(2022).

위치를 통해, 거의 대부분 팔을 몸통에 붙인 채 반듯이 누여 안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백제에서는 화장과 매장이 병행되는데, 화장의 경우 신체를 신속히,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장법이기 때문에 신라의 그것과는 개념적으로 대척점에 있다. 거기에 더해 출토 맥락에서 볼 때 피장자의 신체 일부가 상징적·실체적 의미를 상실하고 더 이상 조상의 몸으로 다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의례부에서 존중의 맥락이 크게 떨어지는 정황에서 확인되는 화장인골은 화장이 신체의 의미를 바꾸고 보다 무가치한 다른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매장된 경우에도 일부 목곽묘의 사례에서 볼 때 엄을 철저히 하지 않는 점이 관찰되어, 온전한 자세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장례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두 정치체에서 망자의 신체를 다루는 데 있어 큰 차이가 있었음을 읽을 수 있다.

2. 신체의 계층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삼국시대, 특히 고총기는 사회적 차별화가 심화된 시대였고, 장례의 많은 부분에서도 그것이 관찰된다.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을 일반민의 무덤은 사실상 고고학적으로 감지되지 않지만, 지배계층의 무덤은 현재까지도 잔존한다. 그러한 무덤의 크기나 입지를 통해서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장자의 시신에 걸친 착장형 위세품이나 무덤 내 시신의 배치 상태에서 몸 자체의 계층화가 표현된다. 여기에서는 신라와 백제에서 그러한 사례를 살펴보고 두 정치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신라: 착장위세품의 체계와 순장

신라 고분의 특징 중 하나는 금관을 비롯한 금은제 장신구가 피장자에게 착장된 상태 그대로 출토된다는 점이다. 이미 전술한 바이지만 대관, 모관, 이식, 경식, 과대, 천, 지환, 식리 등 귀금속으로 제작한 장신구는 피장자의 유해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착장 위치에 해당하는 신체 각 부위에서 출토되어 피장자가 착장한 상태에서 안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착장위세품의 공반관계에 일정한 정형성이 있어, 각각의 착장 위세품이 임의로 결집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계로 가면서 다른 종류의 위세품이 추가되는, 누층적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표2 참조).¹⁸

이는 피장자의 신분에 따라서 더 많은 종류의 위세품으로 신체를 장식하는 모종의 사회적 규범으로 해석된다. 가령 가장 기본적인 위세품은 이식이 고, 거기에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면서 과대, 더 높은 계층에서는 관류 등이 차례로 추가되는 식이다. 여기에 더해 고총기의 신라고분에서는 착장 위세품에서 간취되는 사회적 지위와 봉토의 크기 및 부장 내용이 일정한 차등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 착장위세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재질 또한 차등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금 > 금동 > 은의 순서로 위계가 표현되며 그에 따라서 금관은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등 대릉원 일대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경주 일원뿐만 아니라 경산, 대구, 의성, 창녕 등 낙동강 이동의 전 지역에서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신라의 착장위세품 구성은 복식제도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

18 이희준, 「4~5세기 신라 고분 피장자의 服飾品 着裝 定型」, 『한국고고학보』 47(2002); 최병현, 「신라 전기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계층성과 복식군」, 『한국고고학보』 104(2017).

19 하대룡, 「신라 적석목곽묘 계층화와 의례적 자원 차별화: 지니계수 분석을 출발점으로」, 『영남고고학』 97(2023).

표2— 고충기 신라의 착장위세품 구성의 계층성 판단 일례

• 이희준(2002)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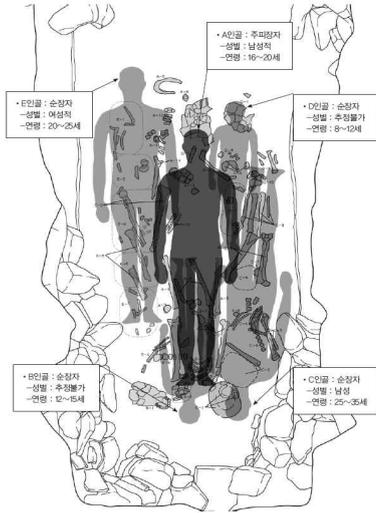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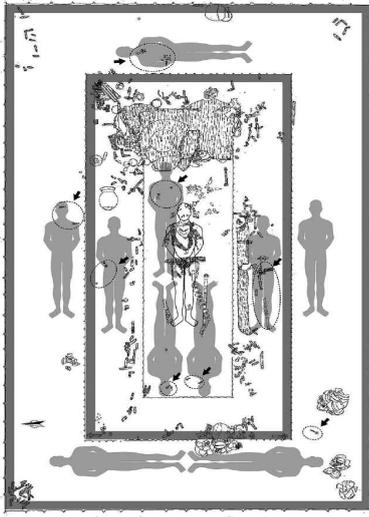
경주							지방					
등급	이식	대도	경식	과대	천	지환	등급	이식	대도	경식	과대	모관
A·B	○											
C·D	○	○	○				d	○		○		
E·F	○			○			e	○			○	○
G·H	○	○	○	○			g·h	○	○	○	○	○
I·J	○	○	○	○	○		j	○	○	○	○	○
K·L	○	○	○	○	○	○						

• 최병현(2017) 안

랭크	세환+대도 착장형	세환+대도 미착장형	태환형
특a	금관+(세환식귀걸이)+(금목걸이)+대형홍식+금·과대+금팔찌·반지+(은팔찌+반지)+금동장대도+금동식리(부장)	—	금관+(태환식귀걸이)+(금목걸이)+대형홍식+금·과대+금·은팔찌·금반지(은반지)+금동식리(부장)
a+	금동관 또는 관 수하식부 모관+세환식귀걸이+구슬목걸이+은·과대+금팔찌·반지 또는 은팔찌·반지+금동장 또는 은장대도+금동식리(부장)	금동관 또는 관 수하식부 모관+세환식귀걸이+구슬목걸이+은·과대+은팔찌+(은반지)+금동식리(부장)	금동관+태환식귀걸이+(구슬목걸이)+은제과대+금·은팔찌+반지+금동식리(부장)
a	금동관 또는 관 수하식부 모관+세환식귀걸이+(구슬목걸이)+은·과대+(은팔찌·반지)+은장대도(금동장대도, 철대도)	금동관 또는 관 수하식부 모관+세환식귀걸이+구슬목걸이+은·과대+(은팔찌·반지)	금동관 또는 관 수하식부 모관+태환식귀걸이+(구슬목걸이)+은·과대+(금·은팔찌·반지)
b	세환식귀걸이+(구슬목걸이)+은장 또는 철대도	세환식귀걸이+(구슬목걸이)	태환식귀걸이+(구슬목걸이)

과 지방의 고충기 신라고분 약 120기를 검토한 결과, 이식의 종류에 따라 무구류와 마구류의 부장 여부가 결정되는 등 착장위세품의 구성은 부장품의 구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²⁰ 착장위세품의 정형성은 장례 규범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20 하대룡, 「고충단계 신라 고분의 부장 정형과 그 함의: 착장위세품과 무구, 마구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01(2016).



북천동형	<p>북천동 19호, 북천동 21-22호, 북천동 27호, 북천동 28호, 북천동 29호, 북천동 30호, 북천동 31호</p>
경주형	<p>황남대동남부유적, 황남대동북부, 경주 1호, 경주 2호, 경주 3호, 경주 4호</p>
임당형	<p>임당 1호, 임당 2호, 임당 3호, 임당 4호, 임당 5호, 임당 6호, 임당 7호, 임당 8호, 임당 9호, 임당 10호</p>
남상형	<p>남상 1호, 남상 2호, 남상 3호, 남상 4호, 남상 5호, 남상 6호, 남상 7호, 남상 8호, 남상 9호, 남상 10호</p>
양산형	<p>양산 1호, 양산 2호, 양산 3호, 양산 4호</p>

그림7- 신라 고총의 순장자 배치 사례
(좌상: 황남대동 남분, 우상: 경산 대동 57-1번지 고분, 하: 각 지역 신라 고분의 주피장자-순장자 배치 변형)

요컨대 신라의 착장위세품은, 장신구로서 신체를 장식하는 개인성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해당 개인이 특정 사회의 구성원을 선언함과 동시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명확히 알려 주는 집단성의 표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고분에서 출토되는 착장위세품에서 수리된 흔적이 다수 확인되면서²¹ 이들이 부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²² 이처럼 귀금속으로 제작한 장신구는 착장자의 소유물로서 생전에 사용되다가, 그의 죽음 후에도 다른 이에게 상속되지 않고 함께 묻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개인성과 집단성의 표지로 활용될 수 있게끔 의도되었다.

무덤 내에서 신체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를 통해서도 몸의 계층화를 읽을 수 있다. 순장의 고고학적 정의를 종속성·강제성·동시성으로 정의한 데에서 볼 수 있듯이²³ 신라의 주피장자는 주곽의 중심부 등 공간적으로 가장 중심된 위치에 자리하고, 순장자는 주곽의 외곽 또는 외부, 부곽 등 부속된 위치에 배치된다(그림7 참조). 순장자 또한 착장위세품을 지니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주피장자에 비해 열등하고 단순한 구성만을 가져 철저히 차별화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변형이 있지만 낙동강 이동의 신라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²⁴

21 박세은, 「慶州·慶山圈域 新羅 耳飾 研究: 주환의 관찰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 김재열, 「귀금속 장신구 기술의 고고학」, 『기술의 고고학: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2022).

22 다만 식리는 구조나 강도로 보아 실생활에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온전히 장송용품으로써 제작·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한상, 「금동식리로 본 삼국시대 장송의례의 한 단면」, 『신라사학보』 20(2010).

23 권오영, 「고대 영남 지방의 순장」, 『한국고대사논총 4』(서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24 김용성, 앞의 논문(2002).

2) 백제: 의관제도의 가능성

반면 백제의 경우, 아직 석촌동 고분군에서는 어떤 착장위세품의 체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최고 위계의 묘제로 여겨지는 적석총과 관련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매장주체부가 확인된 바 없으며, 그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원주, 천안, 청주, 공주, 익산, 고흥 등의 지방에서 한성시기의 백제 장신구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중앙에서 제작, 사여된 것으로 여겨진다(표3 참조).²⁵ 그러나 신라의 지방에서 확인되는 것보다 수량이 적고, 종류도 이식, 관모, 과대, 식리뿐이어서 구성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²⁶ 출토 사례를 살펴보면 조합상에 있어서도 이식에서 시작하여 누층적인 구성을 보이는지는, 구성이 간단하고 과대류의 출토가 적어 다소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오로지 관을 비롯한 금속제 위세품만 사여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고, 의복과 함께 사여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의관제도와 연관지어 보는 해석이 있다.²⁷ 한편 이식 다음으로 출토 사례가 많은 것은 식리인데, 신라와 반대로 관류보다 출토 사례가 많아 주목된다. 식리는 주지하다시피 일상생활에서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관제도나 실생활과는 관련성이 적은 장송용품으로, 지방 지배층의 장례에 대응해 중앙에서 사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25 이한상, 「한성시기 백제의 장신구 사여와 지방지배」, 『역사문화연구』 33(2009).

26 물론, 신라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는 더 복잡한 체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27 노중국, 「백제 관 장식의 상징성」, 국립공주박물관(편), 『백제의 관: 국립공주박물관 연구총서 제24책』(2011).

표3— 한성백제 장신구의 출토 현황²⁸

지역	유구명	관	이식	천	대금구	식리	비고
서울	석촌동 4호분 주변		1				
성남	판교 3호 석실			1			
오산	수정동5-1지점1호분			1			은제뒤꽂이
원주	법천리1호분		1			1	도굴
	법천리4호분					1	도굴
청주	신봉동		1				신고품
	신봉동54호분		1				금동제
청원	주성리2호석곽		1				
	주성리1호석실		1				
천안	용원리9호석곽	1	1				흑유계수호
	용원리37호분		1				
	용원리129호분		1				
공주	수촌리1호분	1	1		1	1	청자사이호
	수촌리3호분					1	
	수촌리4호분	1	1		1	1	흑유호, 청자잔
서산	부장리5호분	1				1	
	부장리6호분		1			1	
	부장리8호분		1			1	
익산	입점리1호분	1	1			1	수습조사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1				1	식리1짝

한성백제의 중앙인 석촌동 고분군에서는 착장위세품의 출토량이 오히려 지방보다 적고, 적석총 주변의 목곽묘에서도 관류나 과대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화장인골이 집중된 1호 매장의례부에서는 수식부 금동이식, 금제이식, (금박)유리구슬, 금제영락 등이 확인되며, 아마도 더 많고 다양한 장신구를 착장했지만 화장 과정에서 대부분 소실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형태로 보아 아마도

28 이한상, 앞의 논문(2009)의 자료를 전재했다.

의복이나 관류 등 평면에 부착했을 금제영락은 석촌동의 목곽묘나 토광묘에서 출토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화장된 피장자들의 신분과 위세품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적석총(계열의 무덤)이 석촌동 고분군에서 상위의 묘제이되,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화장인골과 함께 목곽묘에서 나타나지 않는 위세품과 공반되는 양상은 이들이 한성백제의 최귀위 계층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엘리트 계층이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착장위세품의 구성에 있어서도 신라와 유사한 형태의 누층적 체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라의 고층에서는, 무덤 내에서는 공간적 배치를 통해 주피장자와 순장자의 신체가 명확하게 차별화되었다. 주피장자의 삶과 장례 과정 중에는 몸에 걸친 착장위세품을 비롯한 복식을 통해 특정한 공동체 내에 소속됨을 선언함과 동시에 신분적 차이를 강조했다. 현재까지 축적된 자료로 보아 신라의 착장위세품은 누층적 구조를 가지며 착장자의 신분을 표현하는 역할을 했으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위세품의 구성과 다른 종류의 부장품 구성이 연동하는 양상을 보여 복식과 장례의례 전반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복식제도 혹은 그에 준하는 사회적 규범이 존재했음을 강하게 시사하며, 신체에 착장하는 금속제 장신구가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매개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한성백제의 중심고분군에서는 뚜렷한 위세품의 구성 정형이나 누층적 구성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는 현재의 정황으로 보아 화장 및 그와 관련된 장법의 결과, 아울러 고분군의 파괴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지방의 금속제 장신구 출토 사례를 볼 때에도, 신라의 위세품 체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관제도가 존재했을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출토 사례를 볼 때, 신라에서는 백제보다 여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단적으로 관류의 출토량을 비교할 때 고층기 신라의

관이 중앙과 지방을 통틀어 100점에 육박하는 데 반해, 한성기 백제에서는 10점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금속제 장신구에 한정된 논의이지만, 신체에 직접 착용하는 위세품에 있어서 신라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한 복식이 부장품의 구성 등 장례규범과 연동하는 것을 볼 때, 두 정치체에서 지배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과시하는 데 있어 신체에 착용하는 위세품의 역할에 차이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3. 젠더표지와 젠더화된 장례

성별/젠더는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한 사회적 범주이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신체의 범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범주가 장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무덤에 잔존한 물질자료를 통해서 이에 접근하는 것은 성별/젠더에 따른 신체의 인식이 어떠한지 밝힐 수 있는 것은 물론, 남성성 혹은 여성성과 연관된 가치체계 혹은 사회구조 등 과거 사회의 여러 측면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를 준다.

일반적으로 성별/젠더 연구의 출발점은 피장자의 유골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생물학적 성별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생물학적 성별과 관련된 물질자료의 정형성, 혹은 예외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는 인골 보존에 불리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삼국시대의 고분에서 피장자의 생물학적 성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 잔존한 자료도, 특정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장례의 차별화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숫자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다음에서 보듯 삼국시대 고분에서 성별/젠더 연구는 결정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결론을 무리하게 추출하려는 것보다, 연구사와 관점을 간단히 정리하고

한계와 나아갈 방향을 지적해 두는 정도로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1) 신라: 칼의 남성성에 대한 집착과 대안의 부재

비교적 최근까지 신라 고분 피장자의 성별/젠더와 관련되어 가장 중심된 가설은 이식-성별 가설이었다. 고총기 신라 고분에서는 배타적으로 두 종류의 이식,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이 출토되는데, 전자는 남성과, 후자는 여성과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최초 김원용에 의해 제시되었는데²⁹, 그 근원은 1915년 보문동 합장분(구 보문리 부부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표형분인 이 고분 중 하나에서 대도가 출토되어서, 해당 무덤의 피장자를 남성으로, 그렇지 않은 무덤은 여성으로 추정한 것이다.³⁰ 이후 김원용은 대도와 세환이식의 공반율이 높고, 태환이식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식-성별 가설을 제안한 것이다.

즉 칼이 갖는 남성성을 근거로 성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셈인데, 성별 연구의 초창기에는 연구자마다 어떤 부장품에 젠더를 부여할 것인지 다양한 시각이 나타났다. 가령 같은 방식으로 직조와 관련된 유물인 방추차에 여성성을 부여하여 출토 여부에 따라 여성으로 판단하는 시각도 있었다.³¹ 그러나 점차 세환이식+대도, 태환이식의 배타적인 공반관계가 낙동강 전역에서 확인되면서³² 이식-성별 가설은 중심가설로 자리 잡게 된다.³³

29 김원용, 「新羅古墳의 몇가지 特性」, 『동양학』 4(1974).

30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3』(京城: 朝鮮總督府, 1916). 그러나 두 무덤 모두에서 태환이식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식-성별 가설에 따라 이를 부부총이 아니라 합장분으로 개칭했다. 국립경주박물관, 『慶州 普門洞合葬墳: 舊 慶州 普門里夫婦塚』(경주: 국립경주박물관, 2011).

31 김재원, 『壺衿塚과 銀鈴塚』(서울: 을유문화사, 1948); 박영복, 「古新羅時代の 墓制考察」, 『史學志』 11(1977); 최병현, 「古新羅 積石木槨墳 研究(下): 墓型和 그 性格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32(1981).

32 김용성,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 大邱·慶山의 例』(서울: 춘추각, 1998).

33 이희준, 앞의 논문(2002).

그러나 최근 고총기 신라고분 전반을 대상으로, 소수이기는 하나 인골 자료에 의한 성별 판단과 착장 이식을 비교한 결과는 합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으며³⁴, 황남동 95-6번지 1호에서는 적석목곽묘의 주피장자 여성이 세환이식을 착장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즉 소수이기는 하나 이식-성별 가설을 반박하는 자료가 확인된 것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다시 대도의 착장 여부로 성별을 판단하려는 시각으로 회귀하고 있다.³⁵

하지만 칼이 남성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해석은 현재 매우 일반적인 관점으로, 어디까지나 오늘날의 특정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어디까지 통용될 수 있는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남는다.³⁶ 여성 피장자의 무덤에서 칼이 발견되는 사례는 평창군 하리 2호 석관묘에서부터 시작하여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 아니다.³⁷ 칼이 남성성의 상징일 수 있는 만큼 권력의 상징일 수도 있고, 다른 의미의 상징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존한다.³⁸ 혹은 신라 고분에서 태환이식 착장자에게 등자를 부장하지 않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부장 규범에 따라 구성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어떤 논리적인 추론 절차 없이 칼=남성의 등식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리다.

이처럼 특정 유물이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지녔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34 하대룡, 앞의 논문(2016).

35 최병현, 앞의 책(2021), 447쪽; 이한상, 『신라의 성장 과정과 복식사여체계』(서울: 서경문화사, 2022), 148쪽.

36 B. Arnold, "Belts vs. Blades: the Binary Bind in Iron Age Mortuary Contexts in Southwest Germany,"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ol. 23(2016), pp. 832-853.

37 C. Hedenstierna-Jonson, A. Kjellström, T. Zachrisson, M. Krzewińska, V. Sobrado, N. Price, & J. Storå, "A female Viking warrior confirmed by genomics,"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Vol. 164, No. 4(2017), pp. 853-860.

38 김승욱, 「부장유물로 본 마한계사회 性の 식별과 사회조직」, 『한국고고학보』 124(2022), 599~628쪽.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신체에 직접 착장했던 유물에서 성별에 따른 신체 크기의 차이, 즉 성별이형성을 추출하려는 시도도 있다.³⁹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속제 팔찌가 착장 방법을 고려할 때 손의 너비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의 크기를 계측한 다음 착장자의 성별이 알려진 일본의 야요이 시대 패천, 왕비가 착장한 무령왕릉 출토 다리작명(多利作銘) 천, 오늘날 제작되는 금속제 뱅글의 크기와 비교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라 고분의 팔찌는 모두 여성만 착장 가능했음을 보여, 신라 고분에서는 일부 장신구가 젠더표지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라 고분 피장자의 성별/젠더 연구는, 성별/젠더의 구명 자체에만 주목했을 뿐, 각각의 가설에 따라 무덤의 공간적인 배치나 부장품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아가 성별/젠더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궁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분적인 성별/젠더 관점을 전제한 상태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라 고분의 본격적인 젠더 연구는 긴 연구사에 비해 아직 성취한 바가 많지 않다고 여겨진다. 결정적인 자료가 제한된 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여러 가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다차원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2) 백제: 극복이 어려운 자료의 한계

인골 자료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고총기 신라 고분 연구에서 성별/젠더 관련 연구가 100년 넘게 지속된 이유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다양한 부장품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의 대비,

39 하대룡,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재고: 성별이형성을 기초로 한 천(鈿)의 계측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11(2019), 298~343쪽.

혹은 대도의 착장 여부에서 볼 수 있듯, 신라 고분에는 이분법적인 대립을 보이는 다양한 부장품이 존재하고, 연구사의 대부분은 그중에서 어느 것을 젠더표지로 보느냐의 논의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성기 백제 고분에서는, 인골 자료는 물론 대립쌍을 보이는 부장품 또한 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최근 조사된 석촌동의 화장인골 일부는 성별의 특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출토 맥락상 그에게 귀속된 부장품이 어떤 것인지 특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지방의 고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여서, 한성기 고분 중에 피장자의 성별과 장례의례의 양상을 연관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매우 박약하다. 신라 고총의 사례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장식성이 높은 이식을 토대로 여성의 존재를 추론하거나⁴⁰, 환두대도의 부장으로 남성을, 방추차의 부장으로 여성을 추정할 사례가 있다.⁴¹ 한성백제와는 사회복합화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던 사회로 여겨지지만, 마한계 분묘 자료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부장품 차이를 추정하고 사회 성격을 추론한 연구가 있다.⁴²

한성백제기 고분은 현 자료로 보아 기본적으로 박장에 가깝고, 중심고분군인 석촌동 고분군에서도 장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양호한 상태의 인골 자료 출토를 기대하기에는 난망이기에 현재의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고총기 신라와 백제의 젠더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답보상태에 가깝다. 사회복합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별/젠더의 역할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⁴³, 아마도

40 이훈, 「金銅冠을 통해 본 百濟의 地方統治와 對外交流」, 『백제연구』 55, 2012, 91~112쪽.

41 안지혜, 「고고학자료를 통해 본 백제 여성상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3).

42 김승욱, 앞의 논문(2022).

43 S. Campbell, "Feasting and dancing: gendered representation and pottery in later

그렇기 때문에 고총기 고분에서는 피장자의 성별/젠더에 따라 고분의 구성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골 자료가 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특정한 부장품이 특정한 성별/젠더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특수한 가정을 사용하는 방법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접근의 방법론적 한계는 불가피한 것이라 일단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당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현재의 시각에 가둔다는 데 있다. 직조가 여성의 역할이므로 방추차를 부장한다고 가정하고, 다시 이를 근거로 당시 여성의 역할을 가내수공업으로 본다면 이는 순환논리가 된다. 결국 남성과 여성의 몸이 장례 맥락 내에서 어떻게 같고 다르게 다루어졌는지, 그 사회적 역할이 어떻게 달랐는지 등의 본격적인 성별/젠더 연구를 위해서는 생물학적 성별을 담보하는 인골 자료의 축적이 일정 정도 이상 필요하다. 자연적 조건이나 장법의 특수성은 극복 불가능하지만, 조사 방법의 꾸준한 진전과 관련 연구자의 노력이 조금씩이나마 진전을 가져오리라 기대한다.

Ⅲ. 정치체 간 장례의 차이와 설명의 시도

1. 각 정치체에서 몸을 다룬 관점의 차이

지금까지 고총기 백제와 신라 두 정치체에서 몸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시신을 다루는 방법, 계층성의 표현, 성별/젠더의 표현과 관련하여 살펴보

Mesopotamian prehistory,” *Gender through time in the Ancient Near East* (Lanham: Altamira Press, 2008), pp. 53–76.

았다. 비록 영성한 자료이나, 두 정치체에서 몸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공통성보다는 차별성이 두드러졌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차이에 대해 정리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현재의 자료로 보아, 단정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두 정치체의 장례에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시신의 온전성을 얼마나 유지하는가의 여부에 있다. 특히 적석목곽묘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고총에서는 피장자의 육탈 이전에 안치하기 위해 여러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사망에서 매장에 이르기까지 빈(殯)의 기간이 매우 짧았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고총에서는 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얼음을 사용하는 등 육탈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불 만한 문헌기록은 신라의 장례와 관련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삼국지』 동이전 부여조에 여름에는 얼음을 넣어 장사지낸다⁴⁴는 기록이 주목된다. 또한 같은 조에 징벌의 의미로 시신을 방치하여 썩게 한다⁴⁵는 기록도 보여, 장례 이전에 시신이 부패하는 것이 일종의 금기였음을 읽을 수 있다. 현재 정황으로 보아 신라에도 유사한 관념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의 모습을 잃는 것에 대한 문화적 금기가 있었거나, 원상을 유지하는 것이 사후관에서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성백제의 적석총에서는 화장이 일정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 장법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는 신체의 급속한 파괴를 전제로 하는 장례 방법이다. 또한 현재 관찰 가능한 석촌동 고분군의 매장 인골 안치 자세는 대체로 정연한 자세가 아니기에 염습과 같이 시신을 가지런히 정렬하고 이를 유지하는 행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 매장의례부에서 나타나는 화장골의 의례적 폐기 맥락은 피장자의

44 『三國志』魏書 東夷傳 夫餘, “其死夏月皆用冰…”

45 『三國志』魏書 東夷傳 夫餘, “已殺 尸之國南山上…”

신체가 더 이상 조상의 몸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어, 화장이 단순히 시신을 불에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과정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한바 화장은 피장자의 몸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의 과정이었던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다만 한성백제의 화장에서 한 가지 문제는 고전적인 2차 화장의 관점에서 불 때 매장주체부로 볼 수 있을 만한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차 화장의 일반양상인 화장-습골-매장의 프로세스를 상정한다면 인골의 잔존 상태로 보아 매장의례부는 화장 잔존물의 폐기 지점이고, 습골된 화장골이 매납된 매장주체부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 된다.⁴⁶ 이 관점에서 본다면, 화장골 일부는 여전히 조상의 몸으로서 다루어졌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사성과와 경향으로 보아 석촌동 고분군에서 화장 관련 매장주체부가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 즉 매장의례부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매장주체부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2차 화장을 전제하는 것 자체가 과거 장례에 대한 선입견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매장의례부가 매장주체부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면, 1호분 북쪽 고분군 일대의 연접적석총 대다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무덤이 아닐 수 있다. 피장자의 몸을 직접적으로 수납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연접적석총은 무덤이라기보다는 장례와 관련된 기념물일 것이다. 신라의 고총에서는 무덤 자체에 기념물성을 부여했으나, 백제에서는 무덤과 기념물이 분리된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매장의례부에서 다수의 개체가 출토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념물이 특정한 피장자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적석묘는 계속해서 연접되어 축조

46 하대룡, 「화장 프로세스 모델링을 통해 본 석촌동 고분군의 화장과 그 의미」, 『기술의 고고학: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2022).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거대한 기념물의 군집인 양상이 된다.

이는 개별 봉토가 반드시 한 사람의 피장자에게 독립되어 귀속되는 신라의 고총과 큰 대조를 이룬다(그림8 참조). 신라 고총의 봉토는 호석을 일부 공유하면서 연결분이 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지만, 연결분이 아니라면 봉토의 작도를 변형시켜서라도 서로의 호석이 닿지 않게끔 격리시키는 경향이 뚜렷하다.⁴⁷ 각각의 봉토가 한 사람의 피장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물론이다. 반면 석촌동의 연결적석묘는 방형의 적석묘가 거의 빈틈없이 연결되는 양상이며, 각각의 적석묘가 개별 피장자에게 귀속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4호 매장예부의 경우 적석묘 내의 일정 공간 내에 축조되어 있는데, 역시 다수 개체의 화장골이 확인된다. 결국 두 정치체의 중심고분군에서 봉토/분구의 연결 방식, 개인에의 귀속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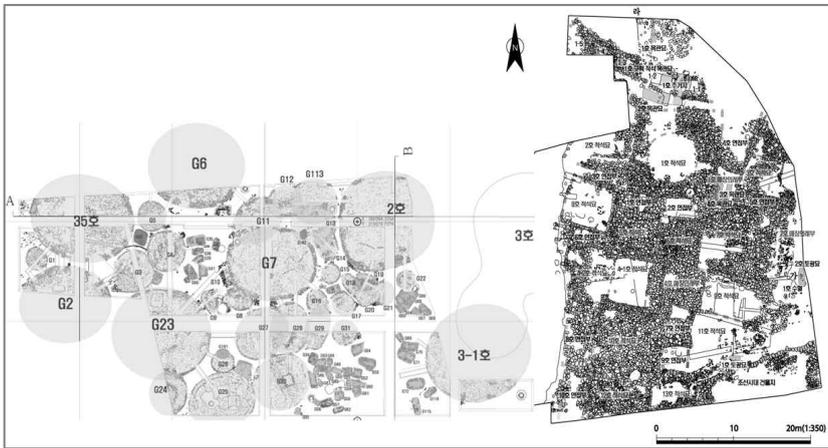


그림8— 경주 쪽샘 G지구의 봉토 연결 상태(좌)와 서울 석촌동 1호분 북쪽 고분군의 연결적석총

47 심현철, 「新羅 積石木槨墓의 墳形과 封墳設計原理」, 『한국고고학보』 109(2018).

한편 위세품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도, 금속제 장신구에 한정된 논의이기는 하나 신라의 경우 착장위세품의 구성이 성별/젠더, 사회적 위치, 혹은 사회적 직능과 깊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실제로 착장위세품이 부장품의 구성과 연동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백제에서 그러한 양상이 분명히 간취되는 것은 무령왕릉에서 보듯 웅진기 이후로, 한성기에서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존재했다 해도 중앙과 지방에서의 출토 양상을 볼 때 신라의 그것보다 단순하고, 신라만큼 광범위하게 유행하지는 않은 것 같다.

결과적으로 고총기 신라와 백제의 장례에서는 피장자의 몸에 대한 개념과 처리 방식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그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특정한 개인의 구별과 강조라고 판단된다. 신라의 고총에서는 각 개인마다 명확히 구별되는 위세품, 봉토, 부장품이 구성되었고, 극도로 후장(厚葬)되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신성화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장례에 압도적인 과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최고위계 지배층의 무덤에서 나타나는 무덤의 구성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오면서 더 낮은 등급이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계단식으로 반복된다.

반면 한성백제의 경우, 적석총과 연접식적석총에서 아직 분명한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매장주체부의 가능성이 있는 매장의례부에는 다수의 개체가 확인된다. 매장이 이루어진 목(관)곽묘군은 최근 8호 적석묘의 조사 사례나 3호분 동쪽 고분군에서 보다시피 집단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며, 다수의 매장주체부가 하나의 분구를 공유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부장품의 구성은, 최고위계의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현재 자료에서는 대체로 박장이며 신라와 같은 압도적인 후장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요컨대 고총기 신라와 백제의 장례에서 몸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는 단순히 신체의 온전성 유지 여부를 넘어서 특정한 개인 정체성에 대한

표현 여부, 기념물로 남게 되는 봉토 또는 분구의 개인 귀속 여부, 후장과 박장의 여부, 경관 지배를 통한 압도적인 신성성의 강조 여부까지 연결된다. 흥미로운 것은 두 정치체가 비슷한 사회복합화 단계에 이르러, 동일하게 분구와 봉토의 고층화를 선택했으되 장례의례의 내용이 어째서 이렇게 다른가 하는 점이다.

통념적인 관점에서는 세계관 또는 종교관의 차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계통이나 전통의 계승 관점에서도 이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고학적 관점에서 고층과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이고 주된 설명은 그것이 최고 지배계층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차별화된 기념물적 성격을 띤 무덤이 이전 사회와는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닌 사회, 즉 국가의 성립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일견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해석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비교 결과를 놓고 볼 때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왜 고층기 백제와 신라의 장례에서 몸과 개인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다른가? 왜 백제의 장례에서 몸의 계층화는 신라의 것보다 낮게 감지되는가? 신라는 압도적인 후장을 선택했지만 백제는 왜 박장을 선택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단순히 고층이 지배자의 권력을 상징한다는 관점은 백제의 장례 투자가 전반적으로 신라의 그것보다 작고, 따라서 백제의 계층화 정도와 사회복합화 정도가 낮았다는 설명밖에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세계관과 종교관의 차이, 전통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본질론적 설명으로서 큰 설득력을 주지 못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벗어나,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집단행동이론을 통해 본 권력의 성격과 장례

전통적으로 신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는 국가는 막스-엥겔스의 국가 모델,

즉 강제로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낸 억압의 도구라는 관점에 의존한다. 따라서 신진화론에서는 국가의 형성 여부를 도시, 거대 기념물, 호화로운 무덤, 사치품의 장거리 교역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⁴⁸ 자연히 국가 성립과 함께 사회 여러 부분에서 엄격한 계층화, 부의 불평등한 분배, 중앙집중화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무덤, 공공건축에서 심화되는 불평등과 계층화를 기준으로 국가 성숙의 정도를 판단한다. 한편 후기과정주의는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권력의 정당화(legitimation) 개념을 제시했다.⁴⁹ 하위계층 스스로가 종속을 납득할 수 있도록, 즉 불평등을 내면화(internalize)할 수 있도록 지배계층이 기념물적 무덤이나 공공건축의 건설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상의 신진화론적, 후기과정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복합화가 진전되어 국가형성에 다가갈수록 사회적 계층화와 부의 불평등은 심화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과 달리, 신제도학과에서 발전된 집단행동이론(collective action theory)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합리적 행위자인 것을 가정하고, 따라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집단, 파벌 간의 협상이 정치체제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본다. 집단행동이론의 관점에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협상이 어떤 형태를 갖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성을 띠는 집단과 낮은 집단성을 띠는 것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통치 방식, 권력의 성격과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고 보며, 이러한 논의를 세계 각지의 고고학적 사례연구를 통해 구축했다.⁵⁰

48 예를 들면, H. J. Claessen, & J. M. Henri, *Ideology and the Formation of Early States* (New York: E. J. Brill, 1996).

49 I. Hodder, *Reading the Past: Current Approaches to Interpretation in Archaeology*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50 R. E. Blanton, & L. F. Fargher, "The collective logic of pre-modern cities," *World Archaeology*, Vol. 43, No. 3(2008), pp. 505-522.

이에 따르면 협상의 형태는 지배계층의 통치 기반, 즉 지배를 위한 물질 토대와 잉여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크게 내부 수입(internal revenues)과 외부 수입(external revenues)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공동체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자원, 즉 세금이나 조세를 의미하고, 후자는 지배계층이 토지, 광물, 교역, 노예노동 등을 독점하여 공동체 외부에서 얻는 수입을 의미한다. 통치 기반이 어떤 종류의 수입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협상 전략이 달라지는데, 가령 지배계층이 조세나 공납과 같은 내부 수입에 의존한다면 피지배계층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그들의 협상 권한이 커지게 된다. 납세자의 협조 없이는 통치 기반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긴밀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집단행동이론에서는 이를 높은 집단성을 갖는다고 표현한다. 높은 집단성을 갖는 정치체의 지배계층은 합리적인 협상 전략을 구축하고, 공동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관료제 형태의 제도를 구축하며, 경제적·이념적 자원에 대한 독점을 포기하는 등 권력에 대한 제한을 수용한다. 지배계층은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소유하더라도 과시적인 소비를 자발적으로 제한하여 연대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지배계층이 특정 자원을 독점, 공동체 외부의 수입에 의존하여 통치 기반을 형성하는 경우, 공동체 내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도 독단적인 정치체 운영이 가능해져, 낮은 집단성을 갖는 정치체가 된다. 이런 경우에 지배계층은 매우 비대칭적인 협상에 참여할 수 있고, 경제적·이념적 자원에 대한 독점적 점유가 가능해진다. 결국 낮은 집단성을 갖는 정치체의 지배계층은 권력에 제한이 없게 되며, 과시적 소비에도 제약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높은 계층화와 불평등을 보이게 된다. 또한 공동체에 의존하는 것보다 후원자-고객 연결망에 의존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백제와 신라의 장례에서 몸을 다루는 데 나타나는 차이점은 이러한 집단행동이론 관점에서 볼 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고총기 한성백제 지배계층의 무덤에서 개인이 두드러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신체에 걸치는 장신구의 체계, 지역적 분포, 수량에서 신라보다 열세인 이유는, 그들의 권력이나 사회복합화 정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권력 기반의 성격이 내부 수입에 의존하여 높은 집단성을 갖는 정치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신라의 고분에서 특정 개인의 신체가 극도로 강조되고, 막대한 후장이 가능하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복잡한 위계를 갖는 착장위세품이 다수 확인되는 것은 그들의 통치기반이 외부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낮은 집단성을 가졌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차이는, 월성북고분군에서 가장 큰 봉토를 갖는 황남대총 남북분과, 석촌동고분군에서 가장 큰 분구를 갖는 석촌동 3호분의 분구를 규모를 비교해 보면 단적으로 드러난다(그림9 참조). 압도적인 규모를 통해 특정 개인에 대한 극단적인 강조가 이루어지는 황남대총 남북분에 비해, 석촌동 3호분은 파괴를 고려하더라도 크게 열세인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 글의 검토 대상인 장례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두 사회가 갖게 되는 경향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높은 집단성을 갖는 정치체에서는 극단적인 빈부 격차가 감지되지 않더라도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중앙집중화를 이룰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를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반대로 낮은 집단성을 갖는 사회는 분산된 의사결정구조를 갖게 되어 낮은 중앙집중화를 보이고, 사회구조에 깊숙이 관여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장례와는 정반대로 공공건축이라 할 수 있는 도성에 있어서 백제의 풍납·몽촌 토성이 신라의 월성보다 규모와 투여된 에너지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인 점 또한 설명할 수 있다. <그림10>은 몽촌토성은 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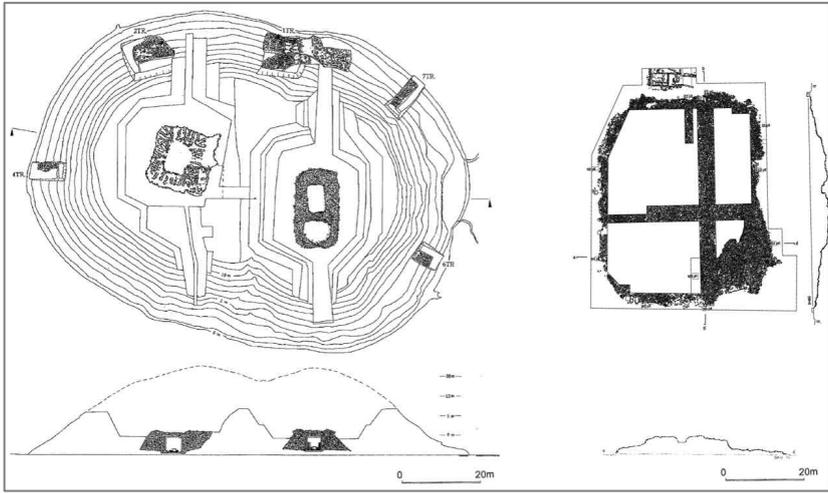


그림9— 신라, 한성백제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는 봉토/분구의 비교
 (좌: 황남대총 남북분, 우: 석촌동 3호분)

제외하고 풍납토성과 월성의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단지 토성벽과 해자 규모를 단순대조한 비근한 비교이지만, <그림9>의 봉토/분구 비교에서 신라의 고층이 압도적인 체급 차이를 보여준 것만큼, 도성의 규모와 투자에 있어서는 반대로 한성백제가 압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두 정치체가 각각의 집단성 수준에 따라 무덤에 투자할 것인지, 공공건축에 투자할 것인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음이 잘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고층기 백제와 신라의 지배계층은 서로 다른 성격의 권력 기반을 가졌으며, 그 결과 각각의 정치체 내에서 상이한 집단성이 초래되었다. 그로 인하여 지배계층의 통치전략이 특정 개인과 계층화를 강조하느냐 또는 반대로 부의 과시적 소비를 억제하고 장례보다는 공공건축에 투자하느냐로 차별화되었고, 최종적으로 장례에서 몸을 다루고 대하는 양상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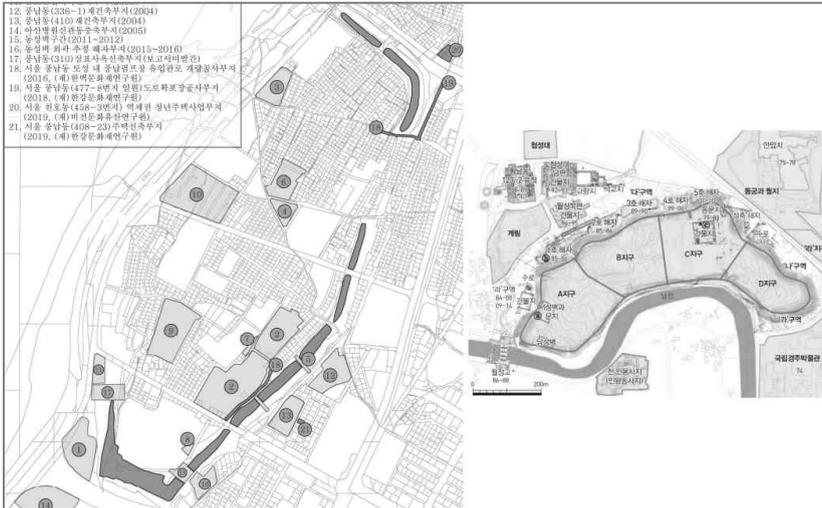


그림10- 풍납토성(좌)과 월성(우)의 규모 비교 무덤과는 반대로, 백제의 풍납·몽촌토성은 규모에 있어 월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를 갖는다.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고총기 한성백제와 신라의 장례에서 피장자의 몸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비교를 통해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유발했는지 설명을 시도했다. 신라와 백제의 장례에는 매장과 화장의 차이뿐만 아니라 신체를 장식하고 개인을 표현하는 위세품에서도 구성, 분포, 수량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신체의 계층화, 특정 개인의 강조 정도에서 두 정치체의 장례는 크게 달랐으며, 그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종교, 내세관, 계통 등 본질적인 설명보다는 집단행동이론의 관점에서 권력 기반의 차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장례에서 피장자의 몸을 둘러싼 여러 정황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 검토의 한계는, 표피적인 현상은 집단행동이론으로 설명한다 하여도, 구체적으로 백제의 내부 수입이 무엇이고, 신라의 외부 수입이 무엇인지는 자료를 통해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차후 이에 대한 보론을 시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三國志』.

2. 단행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쪽샘 vs 탑동: 적석목곽묘 전성시대』. 경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0.

국립경주박물관, 『慶州 普門洞合葬墳: 舊 慶州 普門里夫婦塚』.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2011.

김용성,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 大邱·慶山의 例』. 서울: 춘추각, 1998.

_____, 『신라 고분고고학의 탐색』. 과천: 진인진, 2015.

김재원, 『壺冢과 銀鈴塚』. 서울: 을유문화사, 1948.

이지관,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고려편』.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4.

이한상, 『신라의 성장 과정과 복식사여체계』. 서울: 서경문화사, 2022.

최병현, 『신라 6부의 고분 연구』.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한성백제박물관, 『서울 석촌동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서울: 한성백제박물관, 2022.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3』. 京城: 朝鮮總督府, 1916.

Campbell, S., "Feasting and dancing: gendered representation and pottery in later Mesopotamian prehistory." *Gender through time in the Ancient Near East*. Lanham: Altamira Press, 2008, pp. 53-76.

Claessen, H. J. & Henri. J. M., *Ideology and the Formation of Early States*. New York: E. J. Brill, 1996.

Hodder, I., *Reading the Past: Current Approaches to Interpretation in Archaeology*.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Quinn, C. P., Kuijt, I. & Cooney, G., "Introduction: Contextualizing Cremations." C. P. Quinn, I. Kuijt & G. Cooney (eds.), *Transformation by Fire: The Archaeology of Cremation in Cultural Context*. Tucson: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14, pp. 3-25.

3. 논문

- 권오영, 「고대 영남 지방의 순장」. 『한국고대사논총 4』, 서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 김승욱, 「부장유물로 본 마한계사회 性의 식별과 사회조직」. 『한국고고학보』 124, 2022, 599~628쪽.
- 김용성, 「新羅 高塚의 殉葬」. 『古文化』 59, 2002, 64~87쪽.
- 김원용, 「新羅古墳의 몇가지 特性」. 『동양학』 4, 1974, 375~379쪽.
- 노중국, 「백제 관 장식의 상징성」. 국립공주박물관(편), 『백제의 관: 국립공주박물관 연구총서 제24책』, 2011, 1~23쪽.
- 박세은, 「慶州·慶山圈域 新羅 耳飾 研究: 주환의 관찰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영복, 「古新羅時代의 墓制考察」. 『史學志』 11, 1977, 1~43쪽.
- 심현철, 「적석목곽분의 축조 과정과 매장 프로세스(process)」. 『고고학지』 22, 2016, 59~83쪽.
- 심현철, 「新羅 積石木槨墓의 墳形과 封墳設計原理」. 『한국고고학보』 109, 2018, 184~215쪽.
- 안지혜, 「고고학자료를 통해 본 백제 여성상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한상, 「한성시기 백제의 장신구 사여와 지방 지배」. 『역사문화연구』 33, 2009, 3~36쪽.
- _____, 「금동식리로 본 삼국시대 장송의례의 한 단면」, 『신라사학보』 20, 2010, 5~43쪽
- _____, 「귀금속 장신구 기술의 고고학」. 『기술의 고고학: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 2022, 177~193쪽.
- 이 훈, 「金銅冠을 통해 본 百濟의 地方統治와 對外交流」. 『백제연구』 55, 2012, 91~112쪽.
- 이희준, 「新羅 高塚의 특성과 의의」. 『嶺南考古學』 20, 1997, 1~25쪽.
- _____, 「4~5세기 신라 고분 피장자의 服飾品 着裝 定型」. 『한국고고학보』 47, 2002, 63~92쪽.
- 임영진, 「百濟式積石塚의 發生 背景과 意味」. 『한국상고사학보』 57, 2007, 77~104쪽.
- 장성윤·진홍주·이재성·이명성, 「매장의례부 출토 기와와 소토의 열변형 특성 해석」. 『기술의 고고학: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 2022, 547~552쪽.

- 정치영, 「고대의 화장과 석촌동 적석총의 매장례」. 『기술의 고고학: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 2022, 559~569쪽.
- 최병현, 「古新羅 積石木槨墳 研究 (下): 墓型과 그 性格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32, 1981, 1~83쪽.
- _____, 「신라 전기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계층성과 복식군」. 『한국고고학보』 104, 2017, 78~123쪽.
- 하대룡, 「慶山 林堂遺蹟 新羅 古墳의 殉葬者身分研究: 出土人骨의 미토콘드리아 DNA 分析을 中心으로」. 『한국고고학보』 79, 2012, 175~204쪽.
- 하대룡, 「고총단계 신라 고분의 부장 정형과 그 함의: 착장위세품과 무구, 마구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01, 2016, 124~167쪽.
- _____,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재고: 성별이형성을 기초로 한 천(鈎)의 계층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11, 2019, 298~343쪽.
- _____, 「화장 프로세스 모델링을 통해 본 석촌동 고분군의 화장과 그 의미」. 『기술의 고고학: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 2022, 531~539쪽.
- _____, 「신라 적석목곽묘 계층화와 의례적 자원 차별화: 지니계수 분석을 출발점으로」. 『영남고고학』 97, 2023, 213~241쪽.
- Arnold, B., "Belts vs. Blades: the Binary Bind in Iron Age Mortuary Contexts in Southwest Germany."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ol. 23, 2016, pp. 832-853.
- Blanton, R. E., & Fargher, L. F., "The collective logic of pre-modern cities." *World Archaeology*, Vol. 43, No. 3, 2008, pp. 505-522.
- Hedenstierna-Jonson, C., Kjellström, A., Zachrisson, T., Krzewińska, M., Sobrado, V., Price, N., & Storå, J., "A female Viking warrior confirmed by genomics."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Vol. 164, No. 4, 2017, pp. 853-860.
- Simmons, T., Cross, P. A., Adlam, R. E., & Moffatt, C., "The Influence of Insects on Decomposition Rate in Buried and Surface Remains." *Journal of Forensic Science*, Vol. 55, No. 4, 2010, pp. 889-892.

국문초록

5세기 대를 전후로 하는 백제와 신라의 고총기(高塚期)는 사회복합화 및 국가형성 과정의 전환기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고총의 등장과 소멸, 그리고 뒤이은 고대국가로의 완성은 두 정치체에서 공히 관찰되지만, 각각의 장례 내용과 사회적 투자의 규모는 서로 크게 다르며, 이에 대한 설명이 시도된 바는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백제와 신라의 중심고분군의 장례를 비교하는데 있어 피장자의 몸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주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시신의 처리 방법과 피장자 신체의 계층화,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고, 그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시도했다.

현재 가용한 자료로 검토한 결과, 백제와 신라는 장례에 있어 시신의 처리 및 안치 방법에서 시신의 원상 유지, 신체의 수직적 차별화, 개인별 봉분/분구의 귀속 등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몸과 개인에 대한 태도 차이는 궁극적으로 개인 정체성의 강조 여부, 박장과 후장, 압도적인 경관지배를 통한 신성성의 과시, 계층화의 강조 등 장례문화 전반에 대한 차이를 유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종교관, 전통의 차이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 연구에서는 집단행동이론(collective action theory)를 바탕으로 두 정치체의 권력 기반에 서로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투고일 2023. 6. 12.

심사일 2023. 7. 26.

게재 확정일 2023. 8. 7.

주제어(keywords) 신라(Silla), 백제(Baekje), 장례(mortuary practice), 집단행동이론(collective action theory)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odies and Funerals of Elites during the High-mound Tomb Period in Baekje and Silla

Ha, Daeryong

The high-mound tomb period of Baekje and Silla, around the 5th century AD, is considered a transitional phase in the process of social complexation and state formation. The emergence and disappearance of the high-mound tombs, followed by the completion of the ancient states, are observed in both polities. However, the contents of the funerals and the scale of social investment significantly differ. Very few studies have examined this topic. This study considers the treatment of the body of the deceased as a key starting point in the comparison of the central tombs of Baekje and Silla. Therefore, I compared the funeral contexts of the treatment of bodies, the stratification of the deceased's body, and the expression of gender to explain why these differences appeared.

Review of available data reveals that the funerals in the two polities differed in various aspects—from the emphasis on individual identity, personal ownership of the burial mounds, ostentatiousness of gravegoods, and emphasis on sanctity through overwhelming landscape domination, to the degree of stratification, with Silla having a higher overall funeral investment than Baekje. While these differences are typically interpreted as differences in religious views and tradi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 two polities had different bases of power based on the collective action theory.

